



이번주 은혜의 말씀

본문: 창세기 28장 10-19절

날짜: 2월 15일, 2026년

설교자: 정동석 목사님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가졌지만,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집에 있지 못하고 먼 외삼촌 댁으로 피신하러 가는 도중 광야에서 돌을 취하여 베개로 삼아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유숙할 곳을 찾지 못해 길가의 '돌'을 취하여 베개로 삼았을 때, 즉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을 느꼈을 때 비로소 하늘의 꿈이 시작됩니다.

이 광야는 우리 인생에서 닥치는 심각한 질병이나 도저히 헤쳐 나오기 어려운 고통의 순간과 같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살아 계신 곳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상이 사실은 하나님의 집이며 하늘의 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잠잘 방이 없다는 탄식이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탄생할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머리는 몸 위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이 죽고 오직 예수만 남은 '순수한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질 때, 주님은 비로소 우리 위에 머리를 두시고 안식하십니다. 야곱이 꿈에 본 사닥다리는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해서 억지로 끌어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먼저 이 땅에 거주지를 삼으신 것입니다. 사닥다리는 바로 하나님을 인간 속으로, 땅의 사람을 하늘의 사람으로 연결해 주는 중보자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하늘의 모든 풍성함이 내 삶으로 들락날락하는 '하늘문'의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가치 없고 부서지기 쉬운 흙과 같은 인생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반석(돌)으로 만드시고 결국엔 보석으로 빛어 가십니다. 야곱이 베개로 삼았던 돌이 안식을 주는 도구였다면, 그 돌을 세워 '기둥'으로 만든 것은 건축의 도구가 되었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이제 나 자신의 안위만을 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떠받치는 기둥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걸사람은 세월이 흘러 후패할지라도, 우리 안의 생명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세상 지식이나 내 몸에서 나오는 가짜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확실하게 붙잡으십시오. 야곱의 고난이 그를 하나님의 왕자(이스라엘)로 만들었듯,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은혜의 기회입니다.

야곱이 그 기둥 위에 '기름'을 부은 것은 성령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비로소 그곳은 '벰엘', 곧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 권위를 갖게 됩니다. 흙과 같은 내가 돌이 되고, 기둥이 되어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이 과정이 바로 야곱의 꿈이 지향하는 '나의 꿈'입니다.

주일날 한 시간 예배당에 모여 안전하게 앉아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당에서는 천사 같다가 집에 가서 혈기 내고 싸운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어,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사는 생활 그 자체입니다.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 움직이고, 그 삶이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철저히 죽고 내 안의 예수가 주인이 되실 때,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되는 아브라함의 복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 되는 꿈이며, 그 영원한 안식은 바로 이 꿈의 자리, '벰엘' 안에 있습니다. 야곱이 꾸었던 이 꿈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꿈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흙이다'라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돌에서 보석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은 만국을 다스리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증거하고 생명을 공급하는 통로가 되게 합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오늘 이 역사가 우리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해당 설교는 오른쪽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나성교회 온라인 헌금

온라인으로 헌금을 내실 때는 왼쪽의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해 주세요.

Sermon of the Week:

A Dream in the Wilderness



Passage: Genesis 28:10-19 (ESV)

Date: February 15, 2026

Pastor: Dong Suk Chung

Although Jacob gained the birthright by deceiving his father and brother, he could not remain at home because he feared for his life. So he fled to his uncle's house far away. On the way, in the wilderness, he took a stone, put it under his head as a pillow and fell asleep. There he dreamed a dream.

When Jacob, unable to find a place to shelter in the wilderness, took a "stone" from the roadside and made it his pillow. This represents when he felt the "despair" that there was nothing he could do with his own strength; that was when the dream from heaven began.

This wilderness symbolizes severe illness or moments of deep suffering in our lives—places from which we feel we can never escape. Yet, it is precisely there that God is alive. Just as Jacob awoke and confessed, "Surely the LORD is in this place, and I did not know it", we must come to realize that our painful present reality is, in fact, where we find God's house and the gate of heaven.

Jesus said, "The Son of Man has nowhere to lay his head". This is not merely a lament that there was no place to sleep. A head must rest upon a body. The Lord was waiting for the "body of Christ," that is, the church, which would be brought forth through His death on the cross and His resurrection. When the desires of the flesh die within us and only Jesus remains—when the "pure body of Christ" is formed—then the Lord finally lays His head upon us and rests.

The ladder that Jacob saw in his

dream stood on the earth and its top reached to heaven. This divine bridge was not initiated by human effort but by God's gracious initiative. Because God loved us, He first made His dwelling on this earth through His only begotten Son, Jesus Christ. The ladder represents Christ the mediator, who connects God to humanity and earthly beings to heavenly ones. Through Him, we come to experience the mystery of the "gate of heaven", where the abundant blessings of heaven flow freely into our lives.

God made us from "the dust from the ground". Though our lives are like dust—worthless and easily crumbled—the Lord makes us into stones and ultimately fashions us into precious jewels. The stone that Jacob used as a pillow provided him rest and comfort. But when he set it up as a pillar, it became a tool for building and memorializing God's presence. In the same way, we are no longer to live merely for our own comfort and security; we must be transformed into pillars that support and uphold God's temple.

Though our outer self is wasting away, our inner self is being renewed day by day. Do not be deceived by worldly knowledge or false emotions arising from the flesh. Hold firmly only to the Word of God. Just as Jacob's suffering changed him to become Israel (a prince of God), the difficulties that come upon us are gracious opportunities to restore us into the image of God.

Jacob poured oil on top of the pillar; this symbolizes the work of the Holy Spirit. Only when there is the anointing of the Holy Spirit does that place become "Bethel", the house of God. When we become God's temple and the Holy Spirit dwells within us, we gain a spiritual authority that is not shaken

even amid the storms of the world. That "I", that is like dust, becomes a stone and then a pillar in order to form the house of God. This process is symbolized by Jacob's dream and ultimately, it represents our own dreams.

Worship is not merely gathering in a sanctuary for one hour on Sunday. If we behave like angels in church but go home and lose our temper and quarrel, that is idolatry. True worship is when our bodies become the temple and we live in obedience to the voice of the Holy Spirit in our daily lives, not just on Sunday. Jesus must live and move within me, and that life must become a testimony. When "I" have been crucified and it is no longer "I" who live, but Christ who lives in me, then the blessing of Abraham will be fulfilled, in which everyone who meets me will be blessed through His life in me.

Jacob's dream is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It is the dream that in Christ we become eternally one with God. Eternal rest is found in this place of the dream, "Bethel". The dream that Jacob dreamed is also the dream given to us today.

Therefore, do not despair thinking "my life is worthless like dust". God will transform us from stones into jewels. The blessing given to us will cause us to become a channel through which God testifies that He is alive; and it is this testimony that becomes the evidence of His life in us. The true blessing is that everyone who meets us may become spiritually alive. We must boldly go before the Lord today and believe that this work will be accomplished in us according to His Word.

나성교회 연락처

- +1 562-690-7979
- <https://nasungchurch.net>
- information@nasungchurch.net
- 1620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 도서관 운영 시간
주일 오전 9:30 - 오후 1:30

나성교회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대예배실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영어부 예배 (RHBC)	오전 11시10분	EM 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
유치, 유년부 (Seeds)	오전 11시	Seeds Room
중, 고등부 (Abide)	오전 11시 10분	EM 예배실

삼성교회 연락처

- +82 02-2293-4421
- <http://samsungch.or.kr>
-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400 (우) 04701
- 지하철
 - 2호선 상왕십리역(1번 출구)
 - 2호선 신당역(2번 출구)
- 버스
 - 147, 202, 241, 302, 463, N62, N73, 1017, 2012, 2013, 2014, 2015, 6211, 성동01

삼성교회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대예배실 (지하 1,2층)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
유치부	오전 11시	4층 예배실
유년 주일학교	오전 11시	2층 예배실
청소년부	오전 10시 30분	3층 예배실
청년부	오후 2시 30분	3층 예배실